

# “폭설 소식에 차량 줄어”...고속도로 원활

### 고속도로 전체 이용 차량 285만대 예상

### 서울 방향 정체 오후 4~5시 사이 절정

### “코로나19와 눈 예보 등 겹치면서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파 속 눈이 쏟아진다는 예보가 겹치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대체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58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나간 차량은 7만대, 들어온 차량은 5만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고속도로 전체 이용 차량을 285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27만대가 나가고, 30만대가 들어올 것으로 관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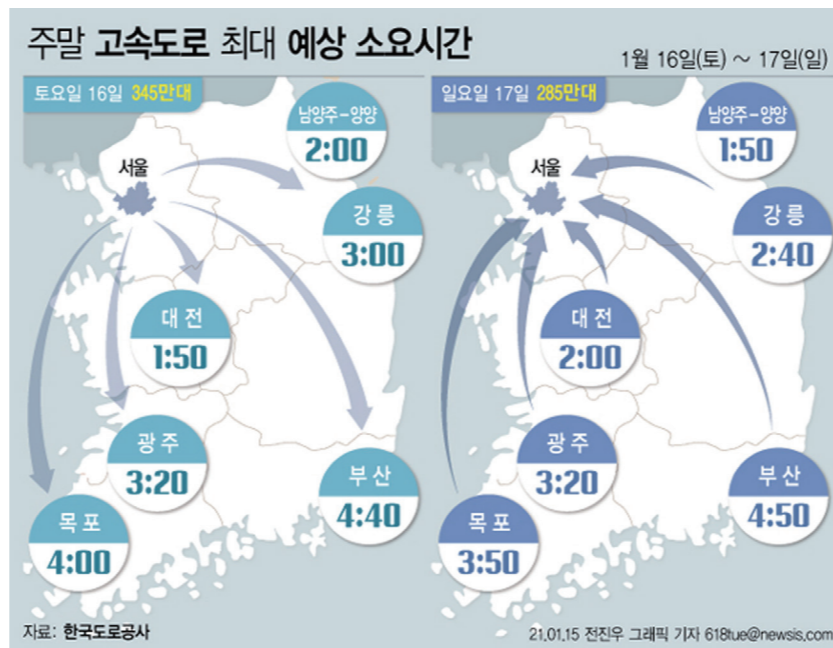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4~5시 사이 절정을 이룬 뒤, 오후 7~8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대체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량이 평소 보다도 많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와 눈 예보 등이 겹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신갈나들목~서울요금소 16.11km 구간과 반포나들목 1.78km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방향은 한남나들목~잠원나들목 2.68km 구간이 일시적인 정체를 보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화나들목 2.55km 구간에서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기준 주요 도



시간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전 1시간32분 ▲서울~대전 3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등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전~서울 1시간44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목포~서울 3시간4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등이다. 기획취재본부

## “군수 통해 수의계약 따줄게” 돈 가로챘 3명 징역형

관급공사 수주 또는 태양광 개발 행위 인허가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돈을 챙긴 3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추징금 5540만 원을, B(60)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4640만 원을 선고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전남 화순군 자동염수분사장 치 설치사업 2건(5억 49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결빙 방지시설 설치 업체 운영자에게 1억 1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생 B씨의 화순군수와 친분 관계를 이용, 군수와 수차례 통화를하거나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만나 청탁·알선했고 해당 업체가 특혜를 받아 실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 운영자에게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를 대가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군수와 친분 관계를 활용,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것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화순군은 해당 청탁 업체가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사전 협의하고, 내부 심의위원들이 최고점을 줘 불법을 현실화했다. 특히 해당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한 정황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C(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967만 원을 선고했다.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징역 8개월

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안고 B씨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추근대며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방문을 거부하며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간 B씨를 뒤따라갔다.

A씨는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부모 욕해서...” 선배 흥기로 찌른 40대 징역 5년

평소 악감정의 대상인 학교 선배가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흥기를 휘두른 4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 2시5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야산 등산로 입구 쪽에서 지인 B(46)씨를 흥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고향·학교 선배인 B씨에게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화 중 다투었다.

A씨는 ‘B씨로부터 거친 인사와 함께 부모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3월까지 특별단속

###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 부과

전남 영광군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오는 3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실시한

다. 단속 기간에는 군청 2개소 8명, 읍·면 10개소 20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이 곳곳에 투입된다.

상습 투기 지역에는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24대를 동원해 24시간 집중 감시·단속활동도 병행한다.

불법투기에 이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을 비롯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

이다. 앞서 영광지역은 지난해 연말까지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로 시가지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 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쓰레기 수거 대란은 생활쓰레기 소각·매립 시설인 영광환경센터가 소재한 흥농읍 성산리 마을주민들이 ‘소각장 용량 증설(20→40t)’에 반발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촉발됐다.

마을주민들은 “부문별한 쓰레기 배출로 재활용품까지 섞여서 소각장으로 반입돼 용량 증설을 조려한

만큼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하고, 소각장 용량이 두 배로 증설될 경우 대기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1월 현재 영광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는 정상화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 영광군의 입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배출에 대해서는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수거 거부를 고지하고,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생활고 엄마가 살해한 9세 딸, 출생신고도 안됐다

### 자신의 딸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기도

생활고를 비판해 자신의 딸(9)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3시27분 미추홀구 주택에서 B양과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딸이 사망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잠겨 있는 문을 개방하고 들

어간 경찰과 소방당국은 B양은 숨진 채로,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주택에서는 옷가지들 고의로 태우는 등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발견됐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

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3월 입학 시킬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